

전쟁억제력강화는 정정당당하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계수립 책동에 계속 발판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다.

얼마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군사기지에서 비행기에 탑재된 고상공능동발사체이자를 리용하여 태평양의 한 섬에서 발사한 판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이 벌어졌다. 이번 시험은 레이저를 리용한 첫 미사일요격시험이라고 한다. 미국방위 미사일방위국은 이번 미사일요격시험이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경쟁, 군비경쟁의 선봉으로 된다. 특히 그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유럽지역 등에서 미국의 핵수단에 새로운 강력한 미사일체계를 보충해줌으로써 전략무기의 균형을 엄중히 파괴하고 복잡한 대결구조와 심각한 전쟁위협을 조성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국은 미사일방위체계가 「적」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다. 이 체계는 새로운 최첨단무기로 미국의 전략적인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로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경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계개발과 수립을 하고지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 군사전략적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여러 나라들에 정치군사적압력을 가함으로써 저들의 리속을 채우며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어오려 하고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완성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략적경쟁대상나라들이 핵무력에 더욱 의존하는 길로 나갈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유럽동맹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이 불가피하게 군비경쟁에 달려들게 되고 새로운 군비경쟁이 국제적판도에서 벌어지게 될것이다. 여기에 달려드는 나라들은 커다란 재정적, 경제적부담을 걸머지게 된다. 이미 령전시기 「별세계전쟁」계획을 통한 군비경쟁으로 이전 쓰러낸 폴란드와 구역을 약화시켰던 중립에는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린 미제는 오늘날에 와서 「별세계전쟁」계획의 재판인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통해 다른 대국들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려 과중한 부담을 걸머지게 붕괴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필수 록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므로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저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예속시키면서 위기에 빠진 자국경제도 견뎌내려 하고있다. 날을 따라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있는 미국은 그 출로를 군사독점체제의 생산을 늘이는데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전의 「별세계전쟁」계획실현에 참가하여 막대한 리득을 본 미군수 독점체들은 그때 꾸러놓은 거대한 생산시설들을 계속 리용하여 돈을 벌자면 큰 규모의 장기적인 군사개발계획이 필요없다.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막대한 자금이 드는것만큼 이 체계수립은 미군수독점체제의 큰 돈벌이대상으로 된다. 또한 이 체계에 가담한 나라들도 군수공을 주문하게 되므로 미국이 목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그들이 타산한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국방성은 미사일

방위체계를 미국본토와 동맹국들의 지상과 해상 그리고 우주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레이저를 리용한 첫 미사일요격시험도 이와 판본된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은 지배주의적 강권행사, 세계평화와 안전과괴의 주범이며 군비경쟁의 장본인이다. 이번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은 「혁명」에 대해 떠들었는데 그런 놀음은 사실상 반혁명적공세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협에 대한 미국의 반혁명적 폭력행사를 위한것이다.

대우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제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우리의 「위협」을 결코 실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방성 당국자들이 미사일요격 시험에서 사용된 목표미사일이 「북조선이 개발할수도 있는 유형의 기술에 해당되는것」이라고 내놓고 떠벌린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는 술한 미군무력이 집결되어있다. 핵무기, 미사일을 비롯한 최신정장장비들이 항시적으로 우리를 겨냥하고있다. 위협은 우리가 받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가 그 무슨 「위협」을 구실로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쳐야 할 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통한하여 선제타격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곧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의 산물이다.

미제는 지난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치우려고 별의별 수법을 다 썼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실패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대조선강경압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로골적으로 기도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나라를 「위협국가」로 몰아붙이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구실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대응조치는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우리의 전쟁억제력강화는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조선반도정세는 의연히 침에하고 긴장하다.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제의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3월 8일부터 벌리려는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콜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그들의 하나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군본리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놓았기때문이다.

적들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김 종 손

우익인민의 위협을 저지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 정당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지지하여 바라피사 회당, 아르헨티나공산당, 사회당, 승리를 위한 전선, 혁명적조당, 베네수엘라 통일사회주의당, 도미니카 노동자당, 볼리비아자유노동당, 에콰도르사회당이 2월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게 하는 천만번 정당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본상대인 조선과 미국은 전후 반세기 전 상태를 공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표시하며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제안에 하루속히 응해나설것을 요구한다.

신결조건인 신뢰가 조성될수 없고 설사 조미가 마주 해도 그 과정은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공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표시하였다.

그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연대성을 보인다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에콰도르에서 연대성집회 진행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무성성명을 지지하는 연대성집회가 2월 11일 에콰도르의 까요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에콰도르사회주의광범한 전선당 전국집회위원회 위원장 셀비야 할가도와 국제관계비서 빠뜨리씨오 썸브라씨오, 주제 사사양 연구 에콰도르문화

회 위원장 밀톤 부르바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연대성 에콰도르 까나주협회 위원장 프르코프키 세사, 볼리비아 출신의 예술가 올베르토 오르메스 플라메스, 「엘 에콰도르 23」 TV방송국 총장 넬손 오르메스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1월 11일 부 우리 나라의 무성성명에 감응되었으며 연설들이 있었다.

주제 사사양 연구 에콰도르

문화회 위원장은 미국이 남조선에 배비한 저들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인만 구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에 대해서만 떠들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까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연대성을 보인다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쿠바국가리사회 위원장 지역의 통합을 다그칠때 대해 강조

쿠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카스트로가 2월 23일 메히코에서 진행된 통합과 발전에 관한 제2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지역

의 통합을 다그칠때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적인 통합기구를 내오기로 한것은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보다 큰 통합과 단결을 지향하는 지역나라들의 집단적 리해관계를 반영한 새 기구의 규약과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알바냐녀평등을 위한 상급위원회 결성

베네수엘라의 까라카스에서 최근에 진행된 알바니아국 여성들의 연대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상급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베네수엘라의무상은 여성성을 을 새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시

키는것은 국가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로 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결성된 상급위원회는 지역의 통합을 다그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본각지에 있는 미공군의 전투기 수십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은 「유사사」를 상상하여 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놀음이 발판적으로 벌어졌다 한다.

본사기자

일미공중합동훈련 감행

일본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2월 25일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네미공군기지에서 공중합동훈련을 감행하였다.

일미합동군사연습의 한 고리로 되는 이번 훈련에는 일본항공 「자위대」와 미공본토와 일

본각지에 있는 미공군의 전투기 수십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은 「유사사」를 상상하여 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놀음이 발판적으로 벌어졌다 한다.

본사기자

본각지에 있는 미공군의 전투기 수십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은 「유사사」를 상상하여 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놀음이 발판적으로 벌어졌다 한다.

본사기자

파키스탄들들에 대한 미군의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의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월 24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여러기

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 주민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본각지에 있는 미공군의 전투기 수십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은 「유사사」를 상상하여 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놀음이 발판적으로 벌어졌다 한다.

본사기자

본격화되는 대응에네르기개발움직임

해당량 향으로서 이 나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수준에 비해 10% 줄이려 한다고 한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48개의 생물디젤유체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이 나라의 한 에네르기전문가는 자기 나라에서 에너지가 원인이 제일 풍부하고 전망이 큰 생물연료라고 하면서 식료품과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모두 생물가스생산에 리용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이쉴란트에서도 현재 대응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이 분야에서는 우세를 차지해온 도이쉴란트는 「2006-2009년 고도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수십억을 투자하여 대응에네르기자원을 개발하고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촉발한 후 도이쉴란트는 대응에네르기 자원개발분야에서 이미 차지한 우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은실효파가스방출량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고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자원의 리용효율을 계속 높여왔다. 최근 도이쉴란트는 하여 대응에네르기자원의 리

용효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14%로부터 20%로 높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도이쉴란트의 해당 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추산한데 의하면 2020년에 가서 세네네르기산업이 자동차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을 통가하여 이 나라의 제1산업으로 될것이라고 한다.

스웨리에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대응에네르기자원개발기술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이 나라에서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생물연료를 적극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중점에 비해 40%이상 줄였다. 자요에 의하면 1990-2006년에 스웨리에는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이 9% 줄어 들었다. 이러한 성과는 선진국인 에네르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리듬과 기타 일련의 효과있는 조치에 기인된다고 자신들은 전하고있다.

스웨리에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통제, 건축분야에서의 에네르기자원의 높은 리용효율보장, 자동차배기가스량 감소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대응에네르기개발사업의 적극 추동하고있다.

오늘날 에네르기자원은 경제에네르기자원의 변형은 경제구조의 변형을 가져오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부추기는 에네르기를 총속시키기 위한 대응에네르기개발사업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최근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대응에네르기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는것은 오늘날 이 분야에 많은 나라들이 큰 힘을 쏟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대응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본각지에 있는 미공군의 전투기 수십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은 「유사사」를 상상하여 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놀음이 발판적으로 벌어졌다 한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미제와 남조선피괴희롱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무시하고 3월 8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콜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는것을 끝끝내 공표한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2월 25일과 26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 담화를 발표하여 조선은 미국과 남조선이 곧 진행하게 되는 합동군사연습에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데 대하여 이것은 그들이 긴장경화화 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보았다.

대변인은 만약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조선은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매일신문」, 「베이징일보」, 중앙TV방송, 러시아의 「이파르-미쓰통신」, 소련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미국의 AP통신, 일본의 「워싱턴 포스트」, 일본의 교도통신, 「니혼게이지」 등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런목적을 위하여 산물이다. 우리의 전쟁억제력강화는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조선반도정세는 의연히 침에하고 긴장하다.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제의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3월 8일부터 벌리려는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콜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그들의 하나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군본리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놓았기때문이다.

적들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김 종 손

칠레에서 강한 지진 발생

칠레에서 2월 27일 새벽 리히터척도 8.8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수도로부터 서남쪽으로 317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어 100여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고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났다.

20-30초동안 지속된 진동으로 깊은 잠에 들었던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급히 밖으로 뛰

어 담화를 발표하여 조선은 미국과 남조선이 곧 진행하게 되는 합동군사연습에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데 대하여 이것은 그들이 긴장경화화 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보았다.

대변인은 만약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조선은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매일신문」, 「베이징일보」, 중앙TV방송, 러시아의 「이파르-미쓰통신」, 소련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미국의 AP통신, 일본의 「워싱턴 포스트」, 일본의 교도통신, 「니혼게이지」 등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런목적을 위하여 산물이다. 우리의 전쟁억제력강화는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조선반도정세는 의연히 침에하고 긴장하다.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제의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3월 8일부터 벌리려는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콜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그들의 하나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군본리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놓았기때문이다.

적들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김 종 손

민간인학살만행에 대한 대응조치

최근 파키스탄이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국제비행장을 제외한 국내 다른 모든 비행장들로 미국인들이 입국할수 없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인들은 이슬라마바드의 국제비행장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 입국할수 있으며 입국수속절차도 비행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의 한 신문은 「미국인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들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는 부득불 미국인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파키스탄의 이번 조치는 자국에서 빈번히 감행되고있는 미국인들의 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이다.

미국인들은 파키스탄에서 이 나라의 법은 안중에 없이 제삼차법 활개치며 다니고있다. 얼마전 파키스탄경찰이 체포된 5명의 미국인들이 심문과정에 파키스탄주권을 침해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앞서 이슬라마바드와 라호르에서 비법적으로 무기를 휴대한 미국인들이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면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행위가 여러차례 있었다.

「9.11사건」후 「반테로」에 협력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태고고 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그들은 외교관이나 정부관리 신분만 있으면 사슴이 없어도 파키스탄에 입국할수 있었다. 미국인들의 입국수속절차는 파키스탄에 도착하여 이 나라 내무성을 찾았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마무리는 파키스탄의 해당 기관에서 맡아 처리하였다. 미국인들의 손길에 대한 경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에서는 외국인들이 파키스탄내에서 다른 도시나 지방으로 리행하려던 무성으로부터 사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예외로 되었다. 「외교관」 신분은 가진 미국인들은 파키스탄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까짜차번호를 달고 임의의 도시와 지방들을 자유롭게 리행하였다. 미국의 「Xc 씨비시즈」 (이전 「블랙 워터」) 차량 요원들도 외교관의 대우를 받았다. 이 회사 요원들은 미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동주제 미국의교관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견된 고용자들이다. 그들은 「경호」라는 명목밑에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고있다. 단적시제로 2007년 9월 이라크에서 이 회사 요원들의 사적으로 이라크 주민 17명이 죽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이라크정부는 희생자들 모두가 적수공범의 무고한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범죄자들을 처벌할때 대한 목소리가 높아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치외법권을 휘둘러 범죄자들을 때들러도 아무런 법적처벌도 주지 않았다.

미국의 처사가 이러하니 해외주둔 미제침략군이 더욱 오만해져 온갖 비법행위를 일삼고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부대가 파키스탄의 국경을 침범하여 한 중독지역에 미사일들을 발사하여 1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망자들속에는 7명의 외국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미군부대는 사망자들이 폐허속에서 시체들과 부상자들을 끌어내려고 첫번째 폭발장소로 달려가고있을 때 때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하였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파키스탄의 한 지역에 대한 미군부대의 공습으로 2명이 죽었다. 자요에 의하면 지난해 미군부대의 파키스탄공습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근 7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미군은 파키스탄령내의 중독지역들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특공대 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사망한 한 군사전문가는 군사작전들에서 민간인사망자수가 늘어났다는 파키스탄과 접한 아프가니스탄국경지역에서 나토와 별도로 미군특공대가 증강된것과도 관련된다라고 말하였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은 미국회청문회에서 3~4개월전부터 이 지역에서 미군특공대의 군사작전이 강화되고있다고 증언하였다. 미국은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에 따라 올해에 추가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미군부대에 특공대를 배로 증강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의 검은 손길이 미치는 여 어디에서나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이 벌어지고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인민들속에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본사기자 조 성 철

이런목적을 위하여 산물이다. 우리의 전쟁억제력강화는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조선반도정세는 의연히 침에하고 긴장하다.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제의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3월 8일부터 벌리려는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콜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도 그들의 하나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군본리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놓았기때문이다.

적들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김 종 손

본격화되는 대응에네르기개발움직임

해당량 향으로서 이 나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수준에 비해 10% 줄이려 한다고 한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48개의 생물디젤유체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이 나라의 한 에네르기전문가는 자기 나라에서 에너지가 원인이 제일 풍부하고 전망이 큰 생물연료라고 하면서 식료품과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모두 생물가스생산에 리용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이쉴란트에서도 현재 대응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이 분야에서는 우세를 차지해온 도이쉴란트는 「2006-2009년 고도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수십억을 투자하여 대응에네르기자원을 개발하고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촉발한 후 도이쉴란트는 대응에네르기 자원개발분야에서 이미 차지한 우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은실효파가스방출량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고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자원의 리용효율을 계속 높여왔다. 최근 도이쉴란트는 하여 대응에네르기자원의 리

용효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14%로부터 20%로 높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도이쉴란트의 해당 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추산한데 의하면 2020년에 가서 세네네르기산업이 자동차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을 통가하여 이 나라의 제1산업으로 될것이라고 한다.

스웨리에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대응에네르기자원개발기술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이 나라에서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생물연료를 적극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중점에 비해 40%이상 줄였다. 자요에 의하면 1990-2006년에 스웨리에는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이 9% 줄어 들었다. 이러한 성과는 선진국인 에네르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리듬과 기타 일련의 효과있는 조치에 기인된다고 자신들은 전하고있다.

스웨리에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통제, 건축분야에서의 에네르기자원의 높은 리용효율보장, 자동차배기가스량 감소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대응에네르기개발사업의 적극 추동하고있다.

오늘날 에네르기자원은 경제에네르기자원의 변형은 경제구조의 변형을 가져오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부추기는 에네르기를 총속시키기 위한 대응에네르기개발사업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최근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대응에네르기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는것은 오늘날 이 분야에 많은 나라들이 큰 힘을 쏟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대응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본각지에 있는 미공군의 전투기 수십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은 「유사사」를 상상하여 항공 「자위대」와 미공군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놀음이 발판적으로 벌어졌다 한다.

본사기자